

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(3)

연구기간 2022년 4월 ~ 2021년 12월

핵심단어 사망통계, 근로자 사망, 표준화사망비, 업종

Highlights 기존 2년간 진행된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’에서 제시된 방법론 및 발전방안을 고려하여 2018, 2019년의 자료를 모두 포함한 근로자 사망통계 연보를 개발하였다.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, 자살, 심장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의 사망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전체 외인사 및 자살의 위험이 더 부각되는 결과를 보였다.

1

연구배경

- 국내에서는 여러 형태로 사망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고 있으나, 근로자 전체 사망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.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20-2021년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(1,2)’을 통해 근로자의 사망 통계를 제시한 바 있음.
- 본 연구를 통해 2020-2021년 ‘근로자 사망통계 연보개발 시범사업(1,2)’에서 제시한 근로자 사망통계를 보완하고, 2019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 최신화하여 사망원인 전반에 대한 근로자 통계연보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운영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립하고자 함.

2

주요연구내용

연구결과

- 2019년 사망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사망 당일 보험 상실한 경우 1,755건, 사망 이후 보험 상실한 경우 5,725건, 보험 상실일 정보 누락된 167건 중 사망 이후 보험 취득한 사례 9건을 제외한 9건을 제외한 7,638건(내인사 4,937건, 외인사 2,701건)이 분석에 포함됨.
- 사망자 수는 남성(84.0%), 50대(29.4%), 서울(24.0%), 제조업(24.4%), 재직기간은 10년 이상(18.8%)이 가장 많고, 사망원인 별로는 악성신생물(22.9%), 자살(17.8%), 심장 질환(15.4%) 순으로 많음. 업종별로는 대부분 악성신생물과 심장질환이 1,2위 사망원인임. 잠재근로손실연수는 자살(28,286년), 악성신생물(17,125년), 심장질환(11,485년) 순임. 전체 인구 대비 근로자집단에서 비례사망률이 높은 사망원인은 심장질환(6.4%), 자살

(6.2%), 운수사고(5.9%)이며 악성신생물(13.3%)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- 조사망률은 광업, 농업·임업 및 어업과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, 연령표준화를 하였을 경우 광업, 국제 및 외국기관, 농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표준화사망비는 일반인구 대비, 전체 근로자 대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함.
 - 외인사의 경우 일반 인구 대비 높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인 것은 운수사고(농업·임업 및 어업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)와 익사(농업·임업 및 어업)였음.
 -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외인사 표준화사망비를 보인 업종은 농업·임업 및 어업, 광업,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었음.
 - 일반인구 대비 높은 표준화사망비를 보인 내인사 원인은 없었으며, 전체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농업·임업 및 어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에서의 내인사 표준화사망비가 높게 나타남.
 - 악성신생물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암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.

시사점

- 근로자 집단 전체 사망통계는 세계적으로도 현황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분야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향후 지속적 발간을 위한 방법론 정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.

3

연구활용방안

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

- 고용보험 자료의 오류 및 누락사항이 해결되어야 하며, 고용보험 비대상 근로자 포함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- 분석 기준 및 산출 지표에서 직종·업종은 사망 전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(현재 기준)과 가장 오래 종사한 사업장(내인사의 경우)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직종, 사업장 규모, 고용형태(일용직 여부 등)와 관련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함.
- 그림, 그래프 등 요약된 자료가 동시에 제공된다면 교육 활용에 좋을 것이며, 구체적인 분석을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.

활용방안

- 산출된 통계는 국민 전체의 사망원인 통계 및 해외의 사망통계와 결합하여 학술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
- 위와 같은 추세 확인, 학술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업적 사망 위험요인 파악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직업적 건강 위험 요인 발견,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.



연락처

- 연구책임자: 아주대학교 정인철 교수
- 연구상대역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김유진
- 연락처: 052-703-0875
- e-mail: yujiin178@kosha.or.kr